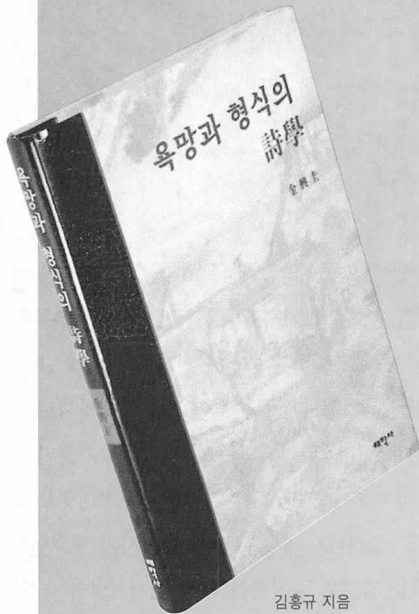


**일반시학과 역사시학 아우른 성과  
투철한 문제의식 본받을 만해**

《욕망과 형식의 시학》



김홍규 지음  
태학사/A5신/338면/15,000원

김홍규 교수의 신간 《욕망과 형식의 시학》을 단숨에 읽었다. 이미 발표한 한국시가 관련 논문을 다시 다듬고 손질해 묶은 것이어서 대부분 낮은 글들이었지만 통째로 읽는 느낌은 새로웠다. ‘아, 이런 데 관심을 뒀 왔구나!’를 넘어 ‘그의 정신적 기반은 역시 이런 것이었어!’라고 확인하는 새삼스러움. 20여년에 걸쳐 발표한 시가 관련 논문이 열두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같이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사자후들이라는 놀라움. 눈이 시리는 도전적 낱말을 뒤에 숨기고서도 넉넉한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그 서늘한 강단(剛斷), 그리고 시선. 역시 통째로 읽는 즐거움에는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공공연히 훑쳐보는 은밀함이 있어서 좋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관심의 축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시의 운율·형식·장르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론적 관심과 시인의 세계관적 욕망 표현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주제론적 관심이 그것이다.

1부에서는 우리 시의 율격적 본질과 평시조의 형식적 특성 해명에 집중하고, 2부에서는 고려숙요와 경기체가 연구의 선행논문들이 지닌 장르론적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 역사적 장르론도 문학적 제도 내지 관습의 문제라면 1, 2부에서 보이는 관심은 분명 형식론적이다. 3부에서는 15~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를 작자층의 이념 추이와 관련시켜 짚어내고, 4부에서는 18·19세기 사설시조의 변모를 향유층의 미의식 추이와 관련시켜 해쳐낸다. 시의 역사적 변화와 시인들(또는 향유층)의 내면적 욕망이 어떤 함수관계에 놓여있는가 추적한다는 점에서 3, 4부에서 보이는 관심 역시 분명 주제론적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저자의 관심이 우리 시의 개별적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서 현상을 통어하고 조정하는 원리 내지 법칙성의 발견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구성하는 논문들은 철저히 시학적이라 할 만하다. 거시적 구도든 미시적 분석이든 형식론적 관심은 한국시의 이론구축과 관련된 일반시학을 지향하고, 주제론적 관심은 한국시의 변화 원리를 발견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시학을 지향한다.

물론 이들 논의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시 율격의 통사론적 해명 시도, 속요의 장르적 다원성 주장, 강호시조 변화의 근거로 제시된 몇몇 작가의 작품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자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연구자세다. 유리알처럼 투명한 논리적 명증성, 끊임 새 없이 씹는 투철한 문제의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달리 고안된 방법론적 독창성(무기명의 사설시조 분석에 원용된 최첨단의 전산화 방법도 빼놓을 수 없다)으로 무장됐기에 그의 논문들은 신선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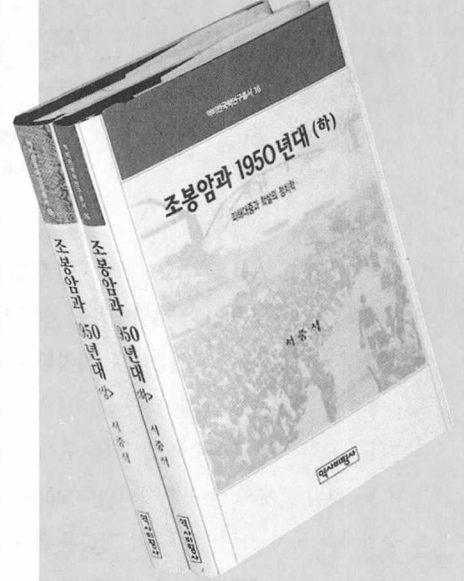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평론집 《문학과 역사적 인간》에서 《조선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 판소리 연구를 거쳐 이 책에 이르기까지 종관하는 저자의 정신세계다. 사설시조의 욕망 분석과 판소리의 사회사적 분석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 어느날, 우리는 또한 저자의 논문들처럼 욕망과 형식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시학의 광맥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성기욱**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저서 《한국시가율격의 이론》(울산울주 민요자료집)(공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공저) 외.

**조봉암의 정치노선과 사상 분석  
현대사 연구의 공백 메운 역저**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



서중석 지음  
역사비평사/A5신/530면 내외/19,000원 내외

한국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 서중석 교수가 《조봉암과 1950년대(상·하)》를 출간했다. 조봉암을 중심으로 해방정국을 분석한 이 책은 《한국현대민족운동 연구(1·2)》를 잇는 또 하나의 노작이다.

《조봉암과 1950년대》의 발간 의미는 우선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50년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일정 연구가 이뤄졌지만, 1948~1950년과 1950년대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철저한 기초자료 분석에 근거해 이뤄진 저자의 연구가 그 공백을 ‘거의 유일하게’ 채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 저자의 연구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저자가 한국현대사 해석에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시각 또는 관심 때문이다. 즉 저자는 분단과 전쟁의 와중에서 민족적 통합과 사회적 과제를 함께 달성하고자 했던 노선과 인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그런 노선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해방정국 과정에서의 중간과 노선, 정부 수립 후의 민족주의세력, 그리고 50년대의 진보당 노선 및 조봉암 등에 대한 관심

과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저자는 이같은 노력이 당시에 패배하고 중단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극우반공체제와 그 야만성을 동시에 지적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의 상편은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부제가 시사하듯, 조봉암의 정당 활동 및 두차례 걸친 대통령 선거, 조봉암-진보당의 평화통일론, 그리고 조봉암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살피고 있다. 근래 들어 조봉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자료집과 연구서들이 출간된 바 있으나, 그것은 대체로 조봉암의 활동 및 진보당의 노선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50년대 극우반공체제라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조봉암의 활동과 이념을 분석한다. 그런 점에서 전후 50년대 극단의 시대 속에서 이를 타파하고자 했던 조봉암의 고투와 그 사상이 충실하게 분석되고 있다.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이란 부제가 붙은 하편은 조봉암에 대한 분석서라기보다는 조봉암이 '피해대중'이라 일컬었던,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뤄졌던 양민학살과 그것이 미쳤던 사회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사실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또한 이를 통해 남한에 극우반공체제가 구축되면서 이뤄졌던 엄청난 학살에 대해서는 조사도, 연구도 거의 없었다. 저자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이 분야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AP통신의 입을 빌어야만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이 여론화되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조봉암과 1950년대》의 발간은 한국 현대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도를 탐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일관된 노력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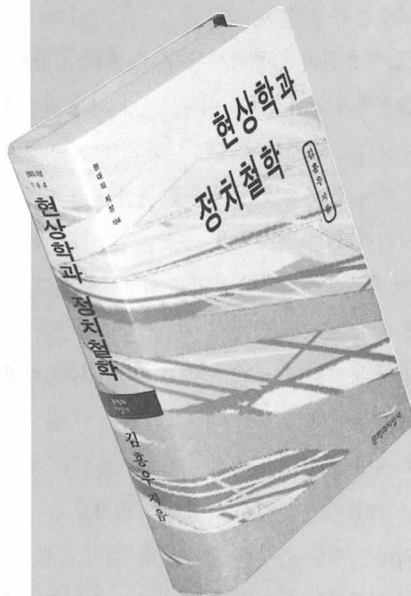
##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외래교수. 저서 《10월 인민항쟁연구》 《광주민주항쟁연구》 외.

서평

## 후설 사상과 현대 정치학 접목시켜 현상학적 관점에서 최근 정치이론 다뤄

《현상학과 정치철학》



김홍우 지음  
문학과지성사/A5신/756면/30,000원

후설은 20세기 전반에 유럽이 처한 심각한 권태감의 폐허와 불신이라는 파멸의 화염 속에서, 그리고 인간성을 향한 사명감의 상실 속에서 내면적인 삶과 정신으로 무장한 불사조의 소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권태감에 과감히 맞서는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투쟁은 삶의 질과 내면세계를 외면해버린 객관주의적 학문의 천박성을 극복하는 것이며, 삶의 소박함으로 되돌아가 이를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데서 그 투쟁이 시작된다고 봤다.

750여쪽이나 되는 김홍우 교수의 이 책 곳곳에서 후설의 이런 정신이 묻어 나온다. 하지만 저자는 후설의 정신을 20세기 전반 한 서구 철학자의 정신으로 화석화하지 않는다. 후설이 의미한 유럽은 지리적인 유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가 의미한 유럽 학문의 위기 혹은 유럽 인간성의 위기 역시 시대와 역사를 달리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있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책 전체를 통해 후설의 정신과 현대정치 내지는 정치학을 서로 이으려고 일관되게 노력했다.

사실 최근의 정치이론에서는 이미 생활세계,

상호주관성 등 현상학적 개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치이론적 업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다룬 주제들은 대체로 이런 작업보다 더욱 근원적인 문제들이다. 그의 논의는 후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현상학의 두 갈래를 대표하는 메를로-퐁티와 슈츠의 현상학 이론에 담긴 기본문제와 그 정치철학적 의미에서 출발한다. 그후 스트라우스·루카치·마오쩌둥·고르바초프 등의 정치사상을 현상학적 시각에서 따져보는 작업을 거쳐, 마침내 후설 현상학이 한국 정치에 던지는 함의를 추적하는 작업으로 끝맺는다. 이런 이론적 논의와 함께 방법론의 측면에서 행태주의적 정치학을 현상학의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 역시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이처럼 저자가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이론이라기보다는 정치현상학이라고 부르기에 더 적절한,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해 맺은 결실은 다양하다. 가장 큰 결실은 민주주의와 삶의 문제, '정치' (the political)와 '정치권' (politics)의 문제, 몸의 정치 등 최근의 정치이론 논의에서 활발하게 제기되는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부각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제를 떠받치면서 깊이 있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발견해냈다는 점이다.

이론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 발전을 오랫동안 꾸준히 모색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과학계 현실이다. 사회과학자로서 현상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매우 드문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서평자는 이 책의 무게를 더욱 느끼게 된다. 이 무게는 책을 구성하는 독립된 글들의 역사가 간략하게라도 소개됐더라면 하는 편집상의 아쉬움과, 책의 내용이 '현상학과 정치철학'을 넘어 저자가 시도한 '현상학의 정치철학(적 함의)'의 방향으로 조금 더 진행됐더라면 하는 서평자 개인의 욕심을 온전히 제압해버린다.

## 강수택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저서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외.

**스크린쿼터 둘러싼 학제간 연구 성과  
문화적·미학적 논의 빠져 아쉬워**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웅진·유지나·심광현 편저  
문화과학사/A5신/302면/10,000원

이 책은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여러가지 쟁점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제도유지의 논리적 당위성을 입증하는 한편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전략과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 장악 전략을 해부해 비판한다. 글쓴이들 또한 영화학은 물론이고 경영학·법학·경제학·신문방송학·정치학을 아우르는 사람들로 구성돼 그야말로 다양한 시각에서 스크린쿼터를 논의하는 모처럼의 자리가 됐다.

1부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둘러싼 각종 논의를 정리했다면, 2부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에서는 한미투자협정(BIT), 2000년 라운드(밀레니엄 라운드), 문화 보호를 위한 법적 차원의 검토 등을 다루고, 3부 <각국의 영화산업과 영화진흥책>에서는 할리우드의 세계 시장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동시에 유럽과 일본의 영화진흥책 또는 산업의 변화과정을 서술한다.

특히 2부는 스크린쿼터만을 논의의 중심에 두다가 생겨날 수 있는 협소한 틀을 크게 넓히는 동시에 이론적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3부는 외국의 사례와 할리우드의 시장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비록 그동안 여러 지면에서 논의됐던 문제기는 하지만, 1부는 이 책의 핵심적 논의를 담았다. 특히 김휴종의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은 문화상품인 영화를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미래예측형의 논의를 통해 제도유지의 설득력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또 원웅진의 <‘통합시청각’ 정책의 전망>은 방송정책과 영화정책을 아우르는 논의의 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심광현의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는 폐지론 및 축소론의 논리적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논의를 선명하게 하고, 김혜준의 <스크린쿼터제, 인간 발전의 정당성>은 그간의 논의를 한번 더 전략적 차원에서 재정립한 결정판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화적·미학적 차원의 논의가 더해졌다면 할리우드 영화의 미학적 본성을 드러내는 훨씬 풍부한 책이 됐을 것이다. 또 이 책의 기획의도와는 무관하겠지만,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논리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 영화산업의 흐름에는 동의하지 않는 ‘계급의 입장’이 빠진 것은 아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제와 일제를 모방한 한국 제품을 쓸 것인가, 미제와 일제를 쓸 것인가는 소비자의 판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며, 한국 영화산업이란 민족의 이름으로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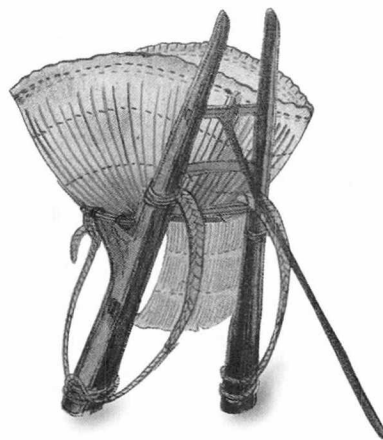
영화평론가. 계간 <독립영화> 편집장. 저서 <영화여 침을 뱉어라> 외.

**“몰랐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쉽게 해결될 줄……

**자서전  
年史·社史  
시리즈·전집물**

맡겨보세요.  
본때 있게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지게와 바스쿠리

**단행본·브로셔·사보**

기획·집필·편집·제작  
산뜻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노련한 경륜, 특특 튀는 이미지가  
함께 어깨동무를 한 공방

**완자무늬**

02)322 — 3532~3